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7월 20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당자	• 자연재난팀장 안호상 ☎440-3351 • 담당자 윤태웅 ☎440-335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집중호우 인명피해 방지 위해 현장 점검

- 산사태, 비탈면·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재해우려지역 현장점검 실시 -
- 박덕수 부시장, 사전 통제 및 대피 철저 등 인명피해 제피해를 위한 안전 조치에 만전 당부 -

인천시가 주말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 비탈면·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재해 우려 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번 주말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재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호우 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발생한 산사태 및 비탈면 위험지역인 문학근린공원 토사 유출 현장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학산 일원을 점검했고, 20일에는 하천변 산책로인 굴포천과 무네미로 지하차도를 점검했다.

오는 21일에는 승기천 일원과 경인로 지하차도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일선 현장 중심의 예찰 활동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피해와 올해 남부지역의 많은

인명사고를 교훈 삼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선제적 통제와 대피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사태 예상 시 한 단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이 고립될 경우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